

근현대 지성 일엽 스님 재조명 된다

일엽문화재단, 콘텐츠 사업 등 전개 예정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신여성이자 선불교의 맥을 이은 일엽(一葉, 1896~1971) 스님(사진)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김일엽문화재단(이사장 율승)은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 신여성인 일엽 스님의 생애와 문화 활동, 여성운동, 불교사상 등을 망라해 연구함으로써 일엽 스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콘텐츠 사업 등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일엽문화재단은 2015년 사업으로는 특강, 학술대회, 전시회, 편집 출간, 평전 출간에 나서며 예산·홍성·서산과 연구 및 협동사업을 통해 지역학 연구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사업으로는 충청남도, 한서대, 예산군, 홍성군, 덕숭총림 수덕사, 경허만공선양사업회 등과 연계해 기념관 건립, 근대여성문학관 건립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는 기존의 모든 글을 통일된 편집으로 출간하고, 영문판 평전 출간도 곧 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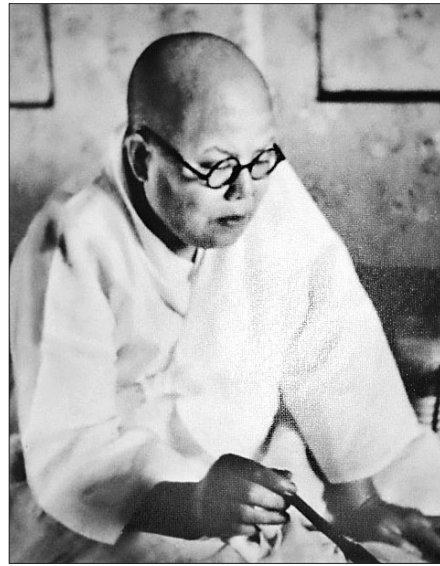
일엽 스님은 1세대 여성작가이자 개화기의 여성운동가였으며, 사상가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비구니였다.

평남 용강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한국과 일본에서 신학문을 수료한 스님은 1920년대 <신여자>를 창간하고 <신정조론>과 <자유연애론>으로 대표되는 여성계

2015년 영문판 평전 출간
특강에 이어 세미나 진행
근대여성문학관 건립 추진

문운동을 전개해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 번의 결혼과 동거 등 곡절 많은 사랑을 거친 후 1933년 출현한 모든 것을 버리고 만공스님 문하로 출가한다. 입산 후에는 스승의 뜻에 따라 절필하고 비구니의 총본산인 견성암의 임승(人繩)직을 30여 년간 맡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만년에는



덕숭산 수덕사 스내자임인 환희대에서 머물며 대중포교를 위해 ‘어느 수도인의 회상’과 ‘청춘을 불사르고’ 등을 펴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엽 스님의 글은 호기심에서 시작돼 읽혀졌지만 곧 그 깊은 성찰의 내용이 화제가 됐다. 그 내용에 감화돼 불교에 귀의하거나 입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스님은

1971년 세수 76세 법랍 43세로 스님이 설립한 덕숭총림비구니선원에서 입적했으며, 스님의 영정과 추모탑이 덕숭산 수덕사 환희대에 모셔져 있다.

김일엽문화재단측은 “일엽 스님은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 한 명”이라며 “학술대회 등을 통해 향후 일엽 스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불교와 문화, 또 지역 주요인물로서 콘텐츠사업 등 문화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진행된 제1회 김일엽 학술대회에서는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김일엽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일엽 스님의 일생을 개관했다. 이어 유진원 한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김일엽과 콘텐츠 활용 방안’, 박진영 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가 ‘김일엽: 여성과 불교철학’을 발표했다. 또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인연, 수행, 출가를 중심으로’, 김주리 한밭대 교양학부 교수가 ‘김일엽 문학의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했다. (041)337-640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로 만해 스님을 기린다

선학원, 7일 만해 열반 71주년 예술제... 사부대중 800여 명 참석

문화 예술로 만해 스님 열반 71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7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어지러운 세상, 남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만해음악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예술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만해 스님의 딸 한영숙 여사, 선학원 8개 분원 소속 합창단과 어린이회 등 메르스 여파에도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위해 선학원은 메르스 예방을 위해 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제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 앞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금년에는 해방 70주년이자 만해 스님이 가신지 71주기가 되는 해”라며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어지러운 세상, 남게 길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만해 스님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자 오늘 음악회와 함께 문학, 학술, 추모 등 네 꼭지로 대중들과 만해 스님을 같이 만나기로 했다. 오

늘 참석할 모두가 만해 스님의 ‘남’이라고 말했다.

국악인 김중업 선생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예술제는 선학원 분원 소속 합창으로 시작됐으며, 각계 예술인들이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국악관현악팀 락음악단은 김성진 지휘자의 지휘 아래 ‘Fly to the sky’와 ‘아리랑환상곡’을 연주하며 한민족의 아픔과 애환을 표현해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판소리와 국악관현악단,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 꾸민 무대 ‘남이시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남이시여’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직접 가사를 붙인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인 김성녀, 소리꾼 정준태, 합창단 150명이 함께 부르는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편곡됐다.

한편, 선학원이 주최하는 만해 추모의 달 행사는 15일 삼각산 정법사에서 열린 만해학술문화제와 29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만해 추모다례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이 6월 7일 개최한 만해예술제에서 김성녀 씨가 국악관현악으로 꾸며진 ‘남이시여’를 노래하고 있다. ‘남이시여’는 이사장 법진 스님이 가사를 붙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네팔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환자 등 동행에 기부 동참 이어져

네팔 대지진 참사를 돕기 위한 불교계 사부대중의 구호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네팔 지진 긴급구호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다양한 사연을 담은 성금이 담겨지고 있다. 500원을 기부한 아동부터 병원 입원환자, 아동생활시설 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에서 각자의 사연이 기부되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대구 반야유치원(원장 남현미)은 지진 이후 한 달여간 자발적 참여를 통한 네팔 돕기 성금을 모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남현미 원장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네팔 기사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네팔 친구들 돕기 모금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군것질을 하지 않고 가져온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이 네팔에 전해지길 바란다”며 12만2천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경남 고성시의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원장 승욱)에서도 62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59명의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보리수동산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용돈을 모아 전달해왔다.

이밖에도 8일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환우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당에서 기금을 모아 4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1,500곳의 개인 및 단체가 네팔 구호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총액은 11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아름다운동행은 네팔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2)737-9595 신성민 기자

“종교편향 빠진 반쪽짜리 인사 청문회”

범종교인 연석회의, 여야 질타 청문회 기간동안 1인 릴레이 시위 중앙총회 의장단 비판 성명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종교편향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반쪽짜리 청문회로 질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이하 황국지지 연석회의)는 6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바로 종교적 편향과 이념적 편향, 그리고 공격적 성향의 반쪽짜리 국무총리 후보라는 점을 인사청문위원회가 보여주지 못한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황국지지 연석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사청문 당일 제출하는 등 인사청문위원회를 농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 하나 같이 국무총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지만, 여기에 여야 청문위원들이 발목 잡혀 절차 국무총리로서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할 국민 소통과 통합의 자질을 검증하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총리 인사 청문회 기간동안 임명 동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 대표와 우희중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의 1인 시위 모습.

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각계 정책 전문가 80%가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조사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황국지지 연석회의는 6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임명동의를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연석회의는 서한을 통해 “황 후보자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인 종교 편향,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공격적 성향, 이 외에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의혹들로 볼 때, 공정하고 온화한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부적당하고 부족한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자질 미달 총리 후보의 임명 동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6월 8~10일까지 이어진 릴레이 시위에

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 바른불교재가모임(우희중 상임대표, 이정희 사무국장), 참여불교재가연대(김형남 공동대표), 대한불교청년회(전준호 중앙회장, 황태웅 간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대표, 이주영 사무국장), 정의평화민주기독교청년회(박성근 대표, 이은석 사무국장), 우리선학연구소(경동현 소장), 불력회(박종민 법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재은 회장, 홍지연 지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도 여야의 인사청문회가 실망스런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6월 11일 입장문에서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그러나 총리후보자의 종교관련 편향적 발언 등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운영하는 공직자는 개인의 사교를 넘어 공평무사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일 것”이라며 “황 후보자는 균형 있는 종교관으로 종교화합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종교계에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가장 낮은 상품가)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야드록초-간체-시가체
BEST 티베트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방콕/부탄 7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곳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 (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살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야-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켄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켄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출발확정 상품 [호텔-일정-포함내용-식사: 타사비교 필수]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7월 11일, 8월 29일, 9월 2일	1,490,000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6월 24일, 7월 17일	1,390,000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7월 10일, 8월 30일	1,290,000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7월 10일, 8월 22일	1,290,000
[문수도량] 오대산/용강석굴	5일	출발일: 7월 17일	1,390,000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7월 25일, 8월 18일	1,090,000
중남미 7개국	20일	출발일: 7월 29일	11,590,000
미동부/캐나다	10일	출발일: 9월 12일	2,610,000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BEST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렘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롄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BEST [관음도량] 향주/보타/낙가산 5일
BEST 상해/향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BEST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웨리 크루즈(수륙대체 가능)
대릉웨이, 화동웨이, 위동웨이
세계3대 트래킹명승 호도협
곤명/호도협/육룡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